



로타리 변화에 대한 열망이 높은 가운데 우리 지구는 Family Together 전략을 중심으로 회원증강의 새 활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회원의 정체 및 감소 추세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539개 지구가 공동으로 안고 있는 과제다. 특히 지역적 기반이 약한 대도시의 경우 신입회원 영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 지구는 이순동 총재의 Family Together 슬로건에 맞추어 ‘나홀로 로타리안’에서 ‘가족연합’ 방식으로 회원을 확장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혈연적 의미의 가족으로서 배우자가 입회해 부부회원이 된다면, 자녀가 로타리 멤버십을 이어 로타리클럽이나 위성클럽에 가입하는 사례

2017-18 상반기 회원증강 현황

‘가족연합’의 패밀리 투게더 공감대 확산

5명 이상 입회 11개 클럽,
한양RC 12명 최다



12월 월례회의에서 한양RC 위성클럽 창립소개



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광의의 가족 개념으로 동창이나 선후배, 직장이나 동호회, 봉사단체 등을 중심으로 신입회원을 영입하고 있다. 특히 지난 회기에는 로타랙트클럽 출신 회원들이 위성클럽에 재가입하여 차세대 로타리 회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것도 Family Together의 소중한 성과로 손꼽히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 5명 이상 증가 성과를 보인 클럽은 11개 클럽이다.(2018. 1. 8. 기준) 이번 1월호에서는 이들 클럽의 회원증강 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한양로타리클럽 신입회원 12명 영입, 31명 규모의 위성클럽 창립 후원도

한양로타리클럽(회장 최경순)은 12명이 입회해 지구 내 최다 영입 기록을 세웠다.

또한, 지난해 11월 ‘한양 연세로타리 위성클럽’ 창립을 후원해 연세로타랙트 출신 회원 31명이 창립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100명 이상 대형클럽이 됐다.

상반기 입회한 분들 가운데 대다수는 최경순 회장이 직접 영입한 케이스. 최 회장이 몸담고 있는 대학 동료들을 신입 회원으로 받아들였고, 심상돈 전회장 등 회원들이 나서주

어 12명이 새 가족이 됐다. 또한 한동안 클럽을 떠나 있던 회원들을 다시 나오도록 권유해 성공한 사례도 있다.

한양로타리는 여건상 회원 배우자보다는 자녀 등을 중심으로 패밀리 투게더를 추진할 계획으로 다리를 놓고 있다. 한양-연세 위성클럽의 경우 로타랙트 출신 회원들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로타랙트 활동을 마치고 로타리와 멀어지면 아예 인연이 끊기게 되므로 로타랙트 역대 회원들 연락처를 파악해 계속 동참시킬 예정이다.

2년 전, 로타랙트 출신들로 구성된 서울남만로타리클럽(회장 강민성)이 처음 창립되어 활동 중인데, 지난해 하나의 로타랙트클럽으로 한양-연세 위성클럽이 창립된 것은 역사상 최초의 사례다. 2016년 RI 규정심의회에서 ‘로타랙트 회원도 로타리 회원이 될 수 있다’는 ‘이중회적 가능’ 규정이 생김으로써 로타랙트나 로타랙트 출신 청년들이 위성클럽 로타리 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게 된 새로운 전형을 보여준 것이다. 요네야마 장학생 출신들이 위성클럽을 조직하려는 준비과정에 있으므로 향후 국내 232개 로타랙트클럽과 로타리 장학생 출신들이 로타리 회원으로 연계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서울삼청로타리클럽 10명, 멘토-멘티, 신입회원 강연 등 효과적 시스템 운영

서울삼청로타리클럽(회장 최인훈)은 Family Together 정신에 따라 직전 및 현 회장이 술 선수법을 보여 영부인을 가입토록 하는 등 금회기 상반기에 10명의 신입회원을 새 가족으로 맞아들였다. 아울러 이우식 직전회장이 조성한 회원증강 노력을 바탕으로 최인훈 회장, 그리고 원장현 차기회장, 유승희 차차기회장까지 4대로 이어지는 일관성 있는 회원증강 방침을 유지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삼청로타리클럽은 신입회원 영입은 물론 유지를 위한 세심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 회장은 회원영입과 클럽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두 가지 방침을 세웠다. 첫째, 젊고 유능한 회원 중심으로 영입해 세대간 균형을 맞추고, 둘째, 현저하게 적은 여성회원 비율을 늘리기로 했는데, 그 결과 상반기



서울삼청로타리클럽 가족회원 입회식

기 신입회원 8명 가운데 5명이 여성회원이다.

회원영입을 위해 예비회원을 주회 게스트로 초대할 경우 회비를 회장이 부담한다고 공식화했다. 그리고 신입회원 1명이 들어오면 추천인과 관심회원 등 2명을 멘토-멘티로 맺어주었고, 번개미팅이란 비공식 모임을 두 차례 열어 유대를 돈독히 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 주회 초청연사 대신 신입회원을 연사로 하여 서로 친밀해지도록 배려했는데, 강연 내용도 유익했고 신입회원 과 기존 회원 간 소통의 장이 되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았다. 그리고 신입회원은 자신과 가까운 동료나 친구를 동반 입회할 수 있도록 권장했는데, 그 첫 사례가 곧 나올

예정이다. 이렇듯 삼청로타리는 신입회원의 입회에서 적응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시스템을 갖추어 중도에 탈퇴하지 않도록 배려함으로써 내실을 기하고 있다.

그리고 삼청로타리는 23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로타랙트 클럽 창립을 후원한 바 있는데, 이 클럽은 졸업생과 회원, 외국인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매월 30만원씩 지원하여 활동을 격려하고, 삼청로타리 주회에 매년 2~5명씩 참석하도록 하여 친목을 다지고 로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기도 하다.

서울중앙RC, 서울남대문RC 각각 6명씩 입회, 5개 클럽은 5명 입회

지난 분기에 6명의 신입회원을 늘린 곳은 서울중앙로타리클럽(회장 김석규)과 서울남대문로타리클럽(회장 남연송)이다.

그리고 신입회원 5명 영입을 기록한 클럽은 서울관훈로타리클럽(회장 윤영석), 서울예장로타리클럽(회장 황순신), 서울사직로타리클럽(회장 최홍진), 서울화산로타리클럽(회장 신정수), 서울동남로타리클럽(회장 박 인) 등 5개 클럽이다.

우리 지구에서 2017-18년도에 위성클럽을 포함한 회원수 100명 이상의 대형클럽을 5개 클럽으로 늘려 2,500명 지구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국내 19개지구 중 'Best 5'에 진입해 'Pride of RI 3650'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로타리 90년의 주역인 우리 지구가 중추지구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는 데 있어 회원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여러 클럽에서 Family Together를 통한 회원증강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

〈충재월신 편집위원회〉



서울화산로타리클럽 신입회원 환영식



서울사직로타리클럽 총재 공식방문



서울남대문로타리클럽 신입회원들과 기념촬영을 한 총재단